

2010-10

통권 289호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3. 15 (火)



경제이슈

2월 美 실업률 지난달과 같은 수준 유지
한은 기준금리 2.0% 동결

경영노트

공급망관리 비용의 효과적 절감의 원칙

사회트렌드

경기침체 신조어 10

차이나 리포트

2010년 중국경제, 인플레이가 문제다

저널브리프

<대학(大學)>이 제시하는 목표달성의 5단계

洗心錄

절제의 미덕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2월 美 실업률 지난달과 같은 수준 유지

- 美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실업률은 9.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
 - 성인 남녀의 실업률 : 성인 남자의 실업률은 10.0%를 기록하였고 성인여성의 실업률은 8.0%를 기록
 - 부문별 고용현황 : 건설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 인원은 각각 6만 4000명, 1만 8000명 감소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000명, 4만 2000명 증가
 - 장기 실업자 : 총 실업자 중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는 지난 1월 631만 3000명에서 18만 명 감소하여 2월 613만 3000명을 기록

- 美 실업률이 지난 10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고용회복 속도가 미미함에 따라 소비 회복세도 느리게 이어질 전망

□ 한은 기준금리 2.0% 동결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하기로 함
 - 배경 :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유럽 재정문제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이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파악됨

- 한편, 미국이 출구전략에 대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1월에 이어 3월에 금리 인상을 재개함
 - 미국 FRB는 재할인율 인상 : 2월 19일 재할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
 - 호주중앙은행 금리 인상 : 유럽 재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 3월 2일 0.25%p를 높여 4.0%로 결정
 -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3월 4일 1%의 금리를 동결하여 10개월째 1%를 유지

-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거나 고용 시장 위축, 소비 회복세 부진 등 불안 요인이 잠재하여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공급망관리 비용의 효과적 절감의 원칙¹⁾

-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은 비용 절감 효과의 규모 파악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음
 - 하지만 비용 절감 기회의 보류, 부서 간 협력 부족, 절감 효과의 무시 등으로 절감 비용의 평가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공급망 측면의 비용 구조 개선이 기업의 전체 비용 절감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 차기의 예산에 활용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및 성과와 직결됨
 - 비용 절감 효과를 실제보다 낮게 파악하거나 예산에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의 전략적 투자보다는 운영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게 됨
 - 반대로 실제보다 높은 절감 효과의 평가는 공급 구조의 신뢰성 저하와 함께 구매 및 공급망관리 부서, 공급 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공급망관리 비용의 효과적 절감을 위해서는 기업 전체의 관심, 각 비용 요소의 절감 원칙에 대한 동의, 절감 비용의 실제 예산 반영이 필요함

< 공급 비용의 효과적 절감의 원칙 >

	내 용
비용 절감에 대한 모든 조직의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및 공급망관리 부서 단독의 비용 절감 노력보다는 기업 조직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더 큰 효과가 있음 • A 전자회사는 각 부서 직원들을 모아 제품에 대한 모든 조직의 비용과 이익을 추적, 분석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높임
각 비용 요소에 따른 절감 원칙의 제시와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비와 고정비, 제조 및 판매 과정과 같은 비용 요소의 분류와 이에 따른 절감의 원칙 제시를 통한 동의가 필요함 • B 소비재 기업은 가동 시간, 배송, 재고 등의 요소의 균형에 따라 부서 및 공급업체의 실적을 평가하고 협력을 이끌어냄
절감 비용을 실제 예산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감 비용의 효과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고 수정하여 예산을 축소하거나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함 • C 업체는 대형 항공사와 20%의 항공료 할인을 협상하여 연 200만 달러의 이익 증가가 가능했지만,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결산에는 이익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1) 이 자료는 <MIT Sloan Management Review>(2010.1)의 'Minding the Supply Saving Gaps'를 요약 정리함

□ 경기침체 신조어 10²⁾

■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최근 “경기침체는 끝났지만 불황 가운데 생겨난 신조어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며 ‘경기침체 속어 10’을 선정, 보도함

- ① **Decruited** (de + recruited) : 해고 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
- ② **Permatemp** (permanent + temporary) : 영구적인 임시직. 임시직이 마치 영구직처럼 되었다는 의미
- ③ **Povo** (poor + poverty) : 가난뱅이
- ④ **Mancession** (man + recession) : 경제 한파로 일자리를 잃은 남자
- ⑤ **Recessionista** (recession + fashionista) : 경제난 가운데서도 저가로 최신 유행을 선호하는 사람
- ⑥ **Madoff'd** (버나드 매도프 前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은 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로서 2008년 12월 FBI에 체포) : 불쾌한 방법으로 바가지를 쓸 때 사용하는 말
- ⑦ **Intaxication** (intoxication + tax) : 세금 환급을 받고 돈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아짐
- ⑧ **Staycation** (stay + vacation) : 불황으로 휴가를 멀리 가지 못하고 집이나 근처에서 머무는 것
- ⑨ **Insource** (outsourcing의 반대말) : 가사 등 예전에는 남에게 시키던 것들을 경제난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르는 동사
- ⑩ **Funemployment** (fun + employment) : 일자리를 잃었다고 좌절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친구를 만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등 자신의 실업상태를 즐기는 것

2) “경기침체 끝나도 신조어는 영원히~”(문화일보, 2010.3.11) 참조

□ 2010년 중국경제, 인플레이가 문제다

■ (개요) 2월 중국 물가는 상승세가 가속화되어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를 증폭

- 2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2.7% 상승, 1월에 비해 1.2%p 가속화됨
 - 이는 중국 정부의 연간 인플레이 목표치인 3%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인 2.25%를 이미 초과함
 - PPI(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도 5.4%를 기록, 급상승세로 전환되어 인플레이 압력을 가중시킴

■ (요인) 상품 수입 물가, 인건비 및 수도·전기·가스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곡물 순 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철광석 등 자원의 최대 수입국으로 국제 상품가격 상승은 중국의 물가 상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농촌과 2, 3선 도시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에 의해 연해, 대도시 지역의 인력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임
- 올해 안으로 중국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독점의 한계(국유기업 손실 규모 부단히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 현실화에 나설 전망이다

■ (부정적 효과) 인플레이이션의 확산은 자산시장 버블 형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음

- 물가상승률이 예금 기준금리(2.25%)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경우 대량의 예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버블을 키울 수 있음
- 또한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3%를 초과할 경우(4% 이상), 물가 급등에 대한 기대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 사회 전반의 안정을 해칠 것임

□ <대학(大學)>이 제시하는 목표달성의 5단계³⁾

- 사서(四書)의 <대학(大學)>은 리더가 덕을 수양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론을 담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중요 리더십 교과서로 자리잡았음
- <대학>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정확한 현실 인식(知止)’, ‘목표의 설정(有定)’, ‘목표에 대한 집중(能靜)’, ‘안정된 조직 추구(能安)’, ‘깊은 사고(能慮)’의 다섯 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 대학(大學)이 제시하는 목표달성의 5단계 >

구 분	내 용
지지(知止): 현실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함 - 자신의 자리가 요구하는 행동과 책임을 파악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유정(有定): 목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는 조직의 비전, 꿈, 목표, 10년 뒤 모습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 -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반은 성공한 셈이며 이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면 됨
능정(能靜):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는 마음을 다스리고 원리원칙에 따라 선택하여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리더가 경망스럽고 부산하다면 조직전체가 부산스러움
능안(能安): 조직의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안과 초조함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조직이라면 성과를 내기가 무척 어려움
능려(能慮): 깊은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는 다각적인 사고를 통해 상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잠깐 떠오르는 감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조직의 미래가 불안해짐 - 여러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여 몇 번이고 심사숙고의 사고를 거쳐 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무엇보다 리더는 목표달성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

3) “리더의 마음 안정돼 있어야 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Economy Plus, 2010.01) 참조

□ 절제의 미덕

영국의 사회사상가 러스킨은 자유와 절제 중 인류의 고풍스런 인격을 표현하는 것은 절제라고 하였다. 명확한 법칙과 적당한 절제는 때때로 번거로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절제는 사람의 손발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갑옷 같은 것이다. 절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며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가치 있는 덕목이다.

우리는 자유만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자유가 고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격체가 아닌 동물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등 동물처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다. 이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다. 사람에게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자유보다 절제에 더욱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냉철히 생각해 보면 인류를 번영시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절제라고 할 수 있다.

나비는 벌보다 더 자유롭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비보다는 벌을 더욱 높게 평가한다. 아마도 벌은 자기 사회의 규칙을 잘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자유와 절제 중 절제를 더욱 가치 있는 미덕으로 취급해야 한다.

곤충의 노동이나 별의 공전, 만유인력 법칙 등 우주의 모든 현상은 자유가 아닌 절제의 산물이다. 태양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마른 나뭇잎은 자유롭다. 인체의 각 기관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기관이 모인 육체는 자유롭다. 만약 반대로 인체 각 기관이 각자 모두 자유를 외치기만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각 기관이 모인 육체는 곧바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그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게 가르치고,
새로운 제안을 할 때에는 마치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듯이 제안하라.”**

- 알렉산더 포프(1688 ~ 1744) : 영국 시인·비평가.